



(27) 문성길 前 복싱세계챔피언

■ 전라도 역사이야기

-영암읍성

# 국민 청량제 돌주먹, 이젠 첩관볶음밥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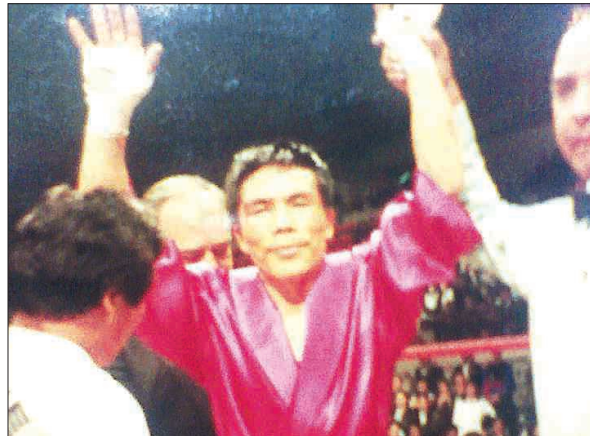
한때 한국이 복싱 강국이었다. 1980년~1990년대에는 수년 동안 세계 챔피언이 5명이 넘었던 적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주먹을 가진 챔피언은 누구일까?

한국 최초로 두 체급을 석권한 홍수환 선수도 있고, 세계 타이틀을 17차례 방어한 유명우 선수도 있다. 또 유재두, 김태식, 장정구 등 많은 챔피언들이 있었다. 하지만 챔피언을 지낸 선수나 복싱 선수들을 상대로 물어보면 대부분은 문성길 선수를 한국 최고의 챔피언으로 꼽는다.

그는 아마시절부터 '돌주먹'으로 불렸으며, 한국 챔피언 중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강관치의 소유자로 인정받았다. 영암 출신의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챔피언인 문성길(47) 선수를 서울에서 만났다.

"원래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났기 때문에 강렬한 운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약간 땀을 들인 뒤 말을 이었다) 솔직히 생활이 어려운 당시에는 운동이 출세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 다. (내) 체구와 체력을 고려해 복싱을 택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문성길 선수가 다른 챔피언들에 비해 비중있게 평가되는



지난 1993년 스페인 사라고사 체육관에서 열린 가나의 '나나 코나두' 선수와의 WBC 슈퍼플라이급 3차 방어전에서 KO승을 거둔 문성길의 손을 주심이 들어주고 있다. <문성길씨 제공>

에 열증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후 제약회사 직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그는 복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2000년에 체육관을 차려 지난 해 말까지 후진을 양성해왔으나 이젠 체력 등을 고려해 모두 그만두고, 부인과 함께 4곳의 대형 마트에 첩관볶음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문성길 선수가 위대한 복서로 꼽히는 것은 역시 권치력과 체력 때문이다. 현란한 테크닉과 온갖 잔기술을 구사하는 수많은 선수들을 주먹 한방으로 놀려버렸던 그의 통쾌한 경기는 항상 최고의 인기였다.

체력이 단연拔群이었다. 아마시절 태릉 선수촌에서 매주 달리기를 하면 육상선수를 제외한 선수들 중 언저나 문성길 이 가장 빨랐다고 한다.

## “현역때 K1 있었다해도 안했을 것

## ‘복싱 사양길’ 세계적 추세 아쉬워”

이 중화(영암도포동)시절 2년 동안 육상선수로 뛰었던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30세에 챔피언이 되어 9차 방어를 하면서 3차례나 12회를 뒀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복싱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는 ‘매맞고 하는 운동’을 하려는 사람이 적습니다. 복싱이 아니어도 성공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스포츠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복싱의 침체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만일 챔피언으로 활동하던 전성기에 K1와 프라이트 등과 같은 각종 격투기가 있었다면 참가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간단히 답했다. 주먹 만큼은 자신있지만 다리나 무릎과 같은 부위를 주로 쓰는 격투기 선수들과의 시합에서는 수련을 하지 않은 복싱선수들이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84년 LA올림픽 이후 5년간 42연승

## 프로 2체급 석권 등 세계에 철권 과시

이유는 그가 우선 아마추어 세계 챔피언이라는 점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챔피언이 된 선수는 국내에서 3명 정도 되지만 최고 권위의 아마추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이는 문성길만이 유일하다.

문성길은 1986년 미국 세계선수권대회(밴텀급)에서 금메달을 따 아마추어 최고 선수가 된 데 이어 프로에서 2체급을 석권함으로써 기록상으로도 세계적인 선수임을 입증했다. 하지만 선수로서 영광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리지 않고 승승장구했던 그지만 올림픽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과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등 아시안 게임 2연패를 했다. 그러나 1984년 LA올림픽에서는 눈 부상으로 탈락하고 말았다. 8강전에서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미국의 로버트 사논을 RSC로 눌러 세계를 경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강전에서 오른쪽 눈가가 찢어지면서 통탄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LA올림픽의 고배는 그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다. 84년 LA올림픽 이후 89년까지 무려 42연승을 거뒀다. 한국 선수로는 다시 없을 기록이다.

문성길은 87년 프로에 데뷔를 하면서 88년 8월 7전 만에 태국의 '카오코 갤럭시'에게 6회 부상으로 판정승을 하며 WBA밴텀급 세계챔피언이 됐다. 한국 선수로는 세계타이틀 획득 최단 기록이다.

88년과 89년 각 한차례 씩 가진 방어전을 모두 KO승으로 장식했다. 그러나 89년 7월 태국 원정 방어전에서 전 챔피언

### 약력

- ▲61년 영암군 도포면 출생
- ▲1982년(뉴델리)·1986년(서울) 아시안게임 복싱 밴텀급 2연패
- ▲1985년 서울월드컵경기대회 금메달
- ▲1986년 미국 리노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 ▲WBA밴텀급,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 ▲1986년 체육훈장 백마장

카오코 갤럭시에게 12회 판정패를 하며 3차 방어에 실패한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불과 4개월 만인 89년 11월 체급을 한단계 낮춰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인 가나의 복싱 영웅 '나나 코나두'에게 도전해 9회 부상으로 판정승을 거둬, 국내 사상 네번째(홍수환, 이영우, 최점환에 이어)로 2체급 석권을 한다.

문성길 선수는 90년 6월 1차 방어를 시작으로 93년 7월까지 9차 방어에 성공한다. 이는 WBA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 유명우 선수(17차 방어)와 WBC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 장정구 선수(15차 방어)에 이은 3번째 기록이다.

10차 방어에 나선 문성길은 도전자 '호세 루이스 부에노'를 맞아 화려한 경기를 펼치지는 못했지만 시종일관 리드를 유지했다. 누구나 우세승을 점쳤으나 결과는 2-1 판정패.

이 경기 이후 재기를 노렸던 문성길은 영원히 사각의 링을 떠나게 된다. 9.10차 방어전 대전료 1억원을 떼어, 프로무대

# 고려초 신포에 조운창 설치 해남·강진 일부까지 관할

우리나라는 뾰족 산이 드물다. 금강산은 첨봉(尖峰)으로 으뜸이다. 날카로운 봉우리 로 유명한 전라도 산은 월출산으로 금강산에 견주어 '소금강'이라 한다. 풍수로 보면 화산(火山)이다.

월출(月出)은 쭈뼛하게 솟은 산을 뜻하고, 월생(月生)·월나(月奈)로도 쓰였다. 영암은 월출산 북쪽에 위치한다. 무등이 광주의 랜드마크인 것처럼 월출은 곧 영암이다. 757년 월나군은 영암(靈巖)군이 됐다.

고려초 영암 신포(薪浦)에 조운창(漕運倉)이 설치되고, 995년 남주(南州)안남도 호부, 1172년 감무 파견, 1350년 진도 명산촌이 옮겨오고, 해남·강진교를 일부와 추자도까지도 영암 관할이었다.

영암읍내는 월출에서 내려선 등성이에 안겨있다. 좌청룡인 범바우등(70m)이 관아의 북서쪽을 가려주었다. 이 능선은 감돌아 총흔담공원(49m)으로 우뚝 서며, 안산(案山) 역할도 했다. 우백호등은 사장 등을 거쳐 동문으로 뻗어내려 1927년 읍진 군청의 안산 구실을 하고 있다.

남동리 통일교에서 서남리 원불교와 군립도서관에 다가서면 산등성이를 따라 성돌 벽이 눈에 띈다. 바로 영암 읍성(邑城)의 흔적으로 돌레가 2.4km 좁이고, 성안은



영암 군립도서관 뒤편에 있는 영암읍성.

32ha 정도다.

문종실록(1451년)에는 “돌레 4천369척, 높이 12척(높고 험한 곳은 9척), 여장고(女牆高) 3척, 적대(敵臺) 6개소, 문 3곳인데 웅성은 없다. 성안 샘 2개소, 해자는 아직 파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1789년 호구총수에는 영암군은 8천214호 2만9천288명인데, 군시(郡始)면 소속으로 동·서·남·북문내 마을이 있었다. 1830년대 읍지에는 연지(蓮池), 덕곡지(德谷池), 적후지(赤後池)가 보인다.

1872년 영암군지에는 동(대흥사회)·서(한국통신)·남문(경찰서)과 함께 성안에 동헌과 내아(천주교와 한전), 객사와 대월부(對月樓), 관·작(등기소)·향청, 사(司)·부(賦)창, 군사(郡司), 연지(새마을금고), 옥(獄), 훈련청이 그려져 있다.

성 바깥은 동문 밖 영보역(永保驛·역물)·금교연(金橋堰·공설운동장)과 시장, 열무정(熱武亭), 서문밖 향교와 사직단, 남문밖 부군당(부성사)과 성황사, 북동쪽에는 여단도 표기돼 있다.

일제강점기 영암에 살았던 요시다게(吉竹武男)가 그린 1911년 영암 지도를 보면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하대두(河大斗1870~1936)집이 보인다. 그의 빗돌이 읍사무소 앞에 3개나 세워졌다.

도로원표가 있는 옥거리동에는 장독걸림(將軍井)터가 있다. 1555년 을묘왜변 때 도포 봉호정 출신 양달사(梁達泗)가 이 샘을 판 뒤 왜군을 무찔렀다고 한다. 월출 화기(火氣)를 샘(突)으로 감무리했음이다. /김경수(새향토문화진흥원장)



# 2008년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 |                |                  |
|----------------|------------------|
| 함평·영광국회의원 이낙연  | 함평농협조합장 옥부호      |
| 함평군청군수 이석형     | 나비골농협조합장 윤한수     |
| 함평군의회의장정현철     | 의원일동 천지농협조합장 노종석 |
| 전남도의회의원 나병기    | 손불농협조합장 김준안      |
| 전남도의회의원 김성호    | 월야농협조합장 정상진      |
| 함평교육청교육장 이재운   | 농협통합RPC대표 전언주    |
| 농협함평군지부지부장 김덕녕 | 대한양돈협회회장 이귀남     |
| 함평축협조합장 임희구    | 천지환경대표 최성규       |
| 함평군산림조합조합장 이승동 | 천보레미콘대표 박질성      |
| 농촌공사함평지사지사장이영대 | 호박사랑대표 백인엽       |
| 한전함평지점지점장정치은   | 대원폴리대표 나윤섭       |
| 함평소방파출소직원 일동   | 명성정화사대표 나승구      |